Dubai유, 3일연속 하락 32달러 붕괴

석유공사, 미국 금리인상 조짐에 석유 재고도 증가 … WTI는 36.61달러

국제유가가 3일 연속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21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전날보다 0.34달러 떨어진 배럴당 31.79달러를 기록해 4월15일 이후 1주일만에 32달러 선이 붕괴됐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0.72달러 급락한 36.61달러에 장을 마감했고, 북해산 Brent유도 32.96달러로 0.20달러 내렸다.

선물시장에서는 뉴욕상품시장(NYMEX)의 WTI 5월물 가격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 가격이 각각 0.77달러, 0.65달러 떨어진 35.73달러, 32.46달러에 거래됐다.

석유공사는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금리인상 시사발언이 투기자금의 매도세를 유발한데다 미국의 원유 및 휘발유 재고가 1주 전보다 20만배럴, 160만배럴 각각 증가했다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발표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4/04/23>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